

ISSN 1599-7863

박물관사람들

2019년 가을 · 67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서원도, 국립중앙박물관

발행일 2019년 9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회원 강현자·계운애·김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주제인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은 9월부터 휴실하고 개편 후, 12월에 재공개될 예정입니다.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2019년 가을 ■ 67호 Contents

기획/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성자의 얼굴	4
	실크로드의 악마들	8
문화칼럼	팔대산인을 찾아서, 남창南昌	12
회원마당	놈 · 놈 · 놈	16
답사기	느린 시간의 터무니	19
박물관 탐방 연재	다시, 生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22
전시실 산책	망각에서 건져 올린 에트루리아	25
회원마당	한국화, 그 새로운 만남	28
박물관회 소식	〈경포대도〉, 〈충석정도〉 유물 기증	30
	테마강좌 신설안내	32
숨은 전시	꽃잔에 술 담으면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34

성자의 얼굴

인도·동남아시아

노스님 : 부처님 귀가 떨어졌으면 다시 붙이면 될 거 아니냐?

청명 : 예?

노스님 : 너희들 눈에는 그게 부처님 귀로 보이냐? 그게 아니라면 법당의 불상이 부처님으로 보이든? 그것도 아니라면 네들 지금까지 나무토막을 섬겼어? 못한 놈들 같으니라고 네들 마음속에 부처가 들어 있거늘, 아니 그래 그 불상에 귀 하나 떨어졌다고 호들갑이야?

— 영화 <달마야 놀자(2001)> 중

박물관 3층 인도·동남아시아실 한 편에서 잘 생긴 보살, 아니 보살상을 만났다. 익히 들어서 아는 간다라 조각상. 간다라 보살상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싯다르타 태자이고 그 다음은 미륵보살, 그리고 관음보살상이 조금 있다고 한다. 그럼 머리에 육계가 있는 것을 보니 깨달음을 얻기 전 싯다르타 태자인가 보다. 깨달음을 얻은 후의 모습인 석가모니 불상과 다른 점은 장신구를 착용하고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으며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려와 있고 표정이 약간 덜 근엄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상처럼 이마에서 곧바로 흘러내리는 콧날을 가진 곱슬머리 미남자의 모습이 마치 아폴론 같으면서도 인도 전설 속 위인들이 가졌다는 신체 특징들도 함께 갖추고 있다.

석가모니의 실제 모습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생전에 남긴 그림도, 조각도, 하다못해 기록도 거의 없다고 한다. 크샤트리아 계급이니 피부색이 옅은 아리안족일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원후 2세기 즈음 지금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지역인 간다라와 인도 북부 지역인 마투라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불상의 시초인데, 이는 석가모니가 열반한 지 몇 백년이 지나서이다. 그 이전에 그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보리수, 대좌, 발자국, 법륜 등으로 대신했었다.

그러하니 어떤 이유에서든 처음 불상을 만들게 되었을 때 석가모니의 실제 모습에 연연하지 않고 제작자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성인의 모습을 구현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조각가 입장에선 좋았을지 더 어려웠을지는 모르겠다. 불상의 시작이 이러하니 마투라 불상이 간다라 불상과 영 판판인들, 한국, 중국, 일본의 석가모니상이 각각 그 나라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들 별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간다라 보살들 건너편 진열장에는 그로부터 천 년 가까이 흐른 후 만들어진 팔라 왕조 시대의 불상들이 있다. 그중에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상이 있는데, 바로 옆에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힌두교의 비슈누상과 거의 같은 복식에 전반적인 분위기마저 비슷해서 처음엔 힌두 신상인 줄 알았다. 둘 다 당시의 인도 왕처럼 화려하게 차려 입었는데, 비슈누가 그의 상징인 커다란 화환을 돌렸다는 점만 다르다. 그래도 안내판의 내용을 감안해가며 다시 살펴보면 불교의 보살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다. 유희좌로 앉아서 손은 설법인(전법륜인)을 하고 있고 양쪽에 협시불이 있으며 위에서는 작은 부처들이 굽어보고 있다. 거기에 사자까지 타고 있으니 문수보살이 맞는 것 같다.

이 무렵 불교는 주술적이고 명상을 중시하며 감각적인 욕망을 긍정하는 힌두교 탄트라를 받아들인 밀교, 즉 금강승불교로 진화해 있었다. 인도 불교의 종착지는 밀교였다. 제석천, 범천, 비뉴천……힌두교의 만신들이 불교에 자리 잡았다. 처음엔 누가 봐도 남성의 모습이었던 불상들은 갈수록 여성스러워지면서 관능적인 모습이 강조되었다. 다른 도상에서 문수보살이 연꽃과 함께 검을 든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어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 밀교 계통인 일본 불교에서 많이 보이는 지혜와 학문의 신 변재천의 도상과 비슷했다. 변재천은 힌두교의 사라스바티 여신이 불교화된 모습이고 이들의 역할은 문수보살과 유사하다. 이제야 연결고리를 찾아낸 기분이다. 이 문수보살이 힌두신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수보살상은 마지막 불교 왕조인 팔라 왕조가 기우는 것과 함께 인도에서 불교가 스러져가던 12세기 작품이란 점에서 초기 불상인 간다라 보살상과 의미상으로도 대척점에 서 있다. 지금의 인도 북동쪽과 방글라데시 지역을 통치했던 팔라 왕조의 영역엔 부다가야 등 불교 성지와 날란다 대학 같은



석조보살입상,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비슈누부조, 국립중앙박물관



석조문수보살비상, 국립중앙박물관

큰 불교사원들이 많았다. 왕조 차원에서 불교를 장려하고 사원을 지원했지만 이미 그 시대의 대세 종교는 힌두교였다.

브라만교 개혁운동 성격을 지닌 불교는 탄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아쇼카 왕과 같은 후원자들 덕에 인도 전역에 퍼졌다. 이후 굽타 왕조시대에 불교와 불교 예술은 절정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브라만교는 아리안족의 베다 문화에 불교, 자이나교, 밀교, 드라비다족의 민간신앙 등을 흡수하면서 인도 문화를 포괄하는 힌두교로 진화했다. 힌두교가 확고한 대중 종교로 자리잡았을 때 불교는 오히려 대중과 너무 멀어져 버린 데다가 밀교화되어 힌두교와의 차별성마저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자 쉽게 스러져버렸다.

가운데 진열장에서는 팔라 왕조와 비슷한 시기에 남인도에서 번성했던 힌두계 왕조인 출라 제국의 청동 신상이 있다. 당시 출라의 동상 제작기술은 최고 수준이었는데, 왕들은 대부분 시바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 뛰어난 기술로 다양한 모습의 시바 신상을 제작했다. 실존인물이었던 석가모니의 모습도 자유롭게 변형되는 판에 오랜 세월 여러 민족의 사상과 관념이 모여 형상화된 시바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었다.

출라 시대에 시바는 대부분 세 개의 눈과 네 개의 팔을 가진 나체의 남성이 우주의 춤을 추는 격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소마스칸다 상처럼 가족과 함께 묘사될 때는 참 편안하고 다정해 보인다. 원래는 가운데 방석에 장남인 어린 스칸다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져서 참 아쉽다.

머리가 여섯에 공작을 타고 다닌다는 전쟁의 신의 어린 모습이 궁금해서 다른 소마스칸다 상을 찾아보니, 너무나도 작고 깜찍한 아이의 모습이었다.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링가로 숭배되는 데다가 파괴의 신이라는 강한 이미지 때문에 시바의 이런 모습이 의외일 수도 있지만, 신화 속에서는 자신을 위해 죽은 아내 때문에 재혼하지 않고 고행에만 정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파르바티는 전생에서부터 시바의 열렬한 숭배자였으며 오만한 아버지가 남편을 모욕하자 그와 연을 끊기 위해 불에 뛰어들어 자결하고 환생해서 엄청난 고행 끝에 다시 시바의 배우자가 될 정도로 일편단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 나니 이 가족의 모습이 더욱 애뜻해 보이고 아들 스칸다의 부재가 몹시 아쉽다. 이 청동상을 발원한 신자는 이들에게 무엇을 빌었을까?

시대마다 지역마다 달라지는 신들과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믿는 대상을 눈앞에 두고 싶어했던 사람들에게 대

해 생각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형상을 보고 자신의 방식대로 마음에 새긴다. 그중 누구의 깨달음이 더 깊었을까?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주장에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소용이 없다면서 대립하는 불상 제작자의 제자들이 나오는 이강백 작가의 희곡 〈느낌, 극락 같은〉에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오른다.

함이정 : 오빠…… 뭘 하는 거죠?

서연 : 물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 물부처요?

서연 : 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 흐르는 물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서유미 회원



동제소마스칸다상, 국립중앙박물관



동제소마스칸다상, 영국박물관

실크로드의 악마들

— 중앙아시아실 —



서원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무려 1700점이 넘는 ‘실크로드’ 유물이 있다. 박물관 3층의 중앙아시아실에 전시된 유물들의 출토지는 대부분 둔황, 투루판, 호탄 같은 중국의 오아시스 도시들이다. 그 가운데 ‘서원도蜃願圖’라 이름 붙은 벽화 조각이 눈에 띈다. 10~12세기 제작, 흙벽에 채색, 세로 90.1센티미터 가로 65센티미터, 투루판 베제클리크 석굴 제33굴. 이 유물에 대한 기본 설명이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서원도는 석가모니가 각기 다른 전생에서 당시의 부처, 즉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과거불過去佛을 만나는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이

벽화에는 두 명의 상인이 나란히 앉아 공양물이 담긴 화려한 쟁반을 들고 있고, 왼쪽에 공양의 대상이 되는 과거불의 광배, 발, 옷자락 등 일부가 남아 있다. 상인의 얼굴에는 각기 다른 개성이 잘 표현되었다. 왼쪽 상인은 약간 넓은 얼굴에 코가 높고 머리카락과 수염이 검은색이다. 이에 비해 오른쪽 상인은 매부리코에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머리카락과 수염이 적갈색이다.”

서원도는 위구르가 투루판을 지배했던 시기(9~13세기)에 크게 유행한 그림으로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같은 주제의 그림이 발견되지 않았다. 서원도의 원어는 프라니디 빌트 Prandhi-Bild로 1904년 투루판에 도착해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을 탐사했던 독일 2차 탐험대의 그윈베델과 르코크가 만든 용어이다. 프라니디는 산스크리트어로 ‘원願’, 빌트는 독일어로 ‘도圖’라는 뜻이다. 즉, 미래에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강한 결의를 나타낸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국, 러시아, 독일, 일본 탐험대가 대부분의 벽화를 뜯어갔으며, 특히 가장 많은 양을 가져간 독일의 수집품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베를린 폭격으로 상당수가 사라져 버렸다. 현재 온전한 베제클리크 서원도는 러시아 예르미타시 박물관에 1점만 남아 있고, 한국, 독일, 인도, 일본의 박물관에 부분적인 조각들이 소장되어 있다.

르코크는 『사막에 묻힌 중국령 투르키스탄의 유물들』이란 책에서 벽화를 떼어내는 방법을 이렇게 밝혔다. “먼저 아주 예리한 칼로 벽화의 외곽 둘레에 깊은 칼자국을 냈다. 그것은 벽화 밑층을 이루는 점토와 낙타똥과 잘게 썬 짚과 스투코(벽에 바른 회반죽)를 관통하는 칼질이었다. 다음으로 벽화 옆의 바위에다 곡괭이, 망치, 정으로 구멍을 뚫어 거기에 여우꼬리톱을 집어넣었다. 표면층의 상태가 매우 나쁠 때는 사람을 고용해 펠트를 쓴 널빤지로 벽화를 단단하게 밀고 있게 했다. 그런 다음 벽화의 톱질이 완전히 끝



위구르 왕자들, 베를린 아시아미술관

베제클리크 사원



연화화생, 국립중앙박물관

나면 벽화가 얹힌 널빤지를 조심스럽게 떼어 윗부분부터 기울여서 바닥에 내려 놓았다.”(『실크로드의 악마들』, 피터 홉커크 지음, 김영종 번역, 사계절)

아주 오래전 투루판의 베제클리크 석굴을 찾았을 때 일이 떠오른다. 위구르어로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제클리크에는 벽화가 치참하게 뜯겨나간 자국들이 선연했다. 현지 안내인은 그 자리들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느 나라의 누가 뜯어갔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이 서원도 벽화는 무슨 연유로 투루판을 떠나 수만 리 떨어진 우리 박물관까지 오게 되었을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열강의 고고학자와 지리학자들은 앞다투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탐험(혹은 유물 탈취?)에 나섰다. 영국 유학 시절 스벤 헤딘, 알프레드 폰 르코크 등에게 중앙아시아 탐험 얘기를 들은 일본인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는 1902년부터 1914년까지 세 차례 탐험대를 파견한다. 그는 교토의 오래되고 큰 절인 니시혼간지西本願寺의 22대 문주門柱이자 백작이었으므로, 막대한 탐험 비용을 댈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탐험대는 호탄, 쿠차, 쿠얼러, 투르판, 누란, 돈황 등을 돌면서 5000여 점의 유물들을 수집해서 돌아왔고, 오타니는 이 유물들을 보관하고 전시하기 위해 고베 근교에 이락장二樂莊을 지었다. 1915년에는 유물들 가운데 명품들을 정리해서 수록한 『서역고고도보西域考古圖譜』(전 2권)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투르판 베제클리크 벽화, 예르미타시박물관

그러나 1914년에 니시혼간지에서 횡령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오타니는 문주 자리에서 물러나고 승려직을 반납한다. 만주로 거처를 옮긴 그는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를 여행하고 돌아와 오타니 컬렉션 가운데 일부 유물을 대련만 철도서관에 기증했다. 1916년에는 나머지 유물과 이락장을 구하라 광업의 사장이었던 재벌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에게 판다.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인 구하라는 당시의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와 고향이 같았다. 구하라는 오타니한테 사들인 유물들 가운데 일부를 1916년에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기증한다. 우연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하라는 평안북도의 구리 광산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들어온 실크로드의 유물들은 1916년 9월 10일부터 경복궁 수정전에서 일반에게 전시된다.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는 당시의 사진을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른다. 문화적 배움을 자랑하고 싶었다면, 아무리 망한 나라의 궁궐이라 해도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실크로드의 유물 1700여 점을 소장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돈황 막고굴 장경동에서 나온 돈황문서를 비롯한 유물들을 돌려달라고 여러 나라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 협약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유물 약탈의 주체는 아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에서 온 벽화 말고도 여러 유물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호탄에서 온 아주 작은 스투코 부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세로 12.8센티미터 가로 11센티미터의 크기로 어느 벽면에 붙어 있었는지 같은 조각들이 여러 점 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9품연지에 핀 연꽃 속에

서 나오는 ‘연화화생蓮花化生’의 순간이다. 우리 불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지만, 양팔을 치켜든 근육질 몸매가 기쁨의 순간을 힘차게 자축하는 듯하다. 호탄은 서역남도의 오아시스 도시로 고대부터 옥의 생산지로 이름난 곳이다. 내게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2001년 첫 해외답사로 실크로드를 갔을 때 돈황, 투루판, 우루무치까지밖에 못 가고 돌아선 일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실크로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아련함과 그리움의 대상 속에는 호탄, 미란, 누란, 쿠차 같은 서역남북도의 오아시스 도시들이 들어 있다.

서울 용산의 박물관 3층에서, 2001년 8월 16일 돈황을 떠나 투루판으로 가는 야간열차 속에서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보며 끄적거렸던 글귀를 불러내본다.

“가장 유명한 17동 장경동부터 북위 초기의 석굴에 이르기까지 미술사의 양식이나 표현방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간의 염원이라는 한 가지는 모두 공통된 듯하다. 사막 한복판에서도 이런 예술을 꽃피웠던 그 힘을 생각하며 새삼 전율을 느꼈다.”

김문숙 회원



경복궁 수정전의 서역미술 전시

팔대산인을 찾아서, 남창

지난 여름에 오랫동안 버르던 중국의 장강 중류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호북성 무한을 시작으로 강서성의 경덕진과 남창을 거쳐 호남성 장사까지의 여정이었다. 도자기의 도시 경덕진에서 마왕퇴 무덤이 발견된 장사로 가는 길에 군이 남창에 들르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이곳이 강서성의 성도 省都이며 강남 3대 누각의 하나인 등왕각이 있다거나 주은래 등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중국인민해방군이 생겨난 곳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명말청초의 화가 팔대산인八大山人이 태어나고 죽은 곳이 바로 남창이다.

오래전부터 내 연구실 한편에는 팔대산인의 <새>라는 자그마한 그림의 복제화가 걸려 있다. 학생들에게 강의할 적에는 알아듣기 쉽게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 <생각하는 사람>에 빗대어 “생각하는 새”라고 소개한다. 사람들이 로댕과 그의 작품들은 다 알아도 팔대산인은 무협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 여기는 실정이다. 새는 물론 바위까지 진하고 흐린 먹으로만 기가 막히게 그렸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 그림은 사실 아주 이상하다. 전통적으로 꽃과 함께 새를 그릴 때는 쌍쌍으로 있어야지 달랑 한 마리만 그리는 법은 없다. 한 쌍의 새는 서로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금슬 좋은 부부를 뜻하기에, 홀로 외로운 새는 그리지 않는다. 그러나 팔대산인은 달랐다. 과감하게 사색에 잠겨 있는 새를 측면 모습으로 그려내기로 작정을 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새가 자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다. 같은 화첩에 들어 있는 <물고기> 역시 예사롭지 않다. 알을 많이 낳는 물고기는 자손의 번창을 상징하므로 보통은 떼를 지어 등장하는데, 팔대산인은 물고기 역시 한 마리만 그렸다. 그것도 커다란 눈에 입을 벌린 채 화면 가운데 딱하니 자리 잡도록 했다. 이놈의 눈을 보면 건방진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헷갈린다. 팔대산인 시절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는 “지금까지 이런 그림은 없었다. 이것은 만화인가 회화인가!”라고 했음직하다.



팔대산인 초상화

올해 초에는 열일을 제쳐두고 상해박물관에 가서 동기창董其昌 특별전을 보고 왔다. 중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대규모 동기창 전시였다. 동기창의 고향이 상해였던 만큼 대표작은 물론 그가 소장했거나 감정했던 고대 회화와 그의 영향을 받은 후배 화가들의 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그런데 여기에 팔대산인의 작품이 포함되었고, 사람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동기창은 한없이 보수적인 화가인 데 반해서 팔대산인은 무척이나 진보적이지 않은가? 어떻게 혁신적인 팔대산인이 고답적인 동기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림은 그림이 설명해준다. 동기창은 화조화를 거의 그리지 않았지만, 그의 산수화는 팔대산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팔대산인의 <산수>를 보면 동기창이 줄곧 추구하던 전통의 집대성이라는 핵심이 오롯이 담겨 있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산수화는 눈에 보이는 단순한 경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만물을 보듬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수묵이라는 간결한 조형어법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점, 선, 면이라는 기본 요소를 가지고 하나의 소우주를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 주는 셈이다. 자주 이야기하는 법고창신, 즉 옛 법을 따르는 가운데 새로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두 화가는 같은 방식으로 실천한 것이다.

1626년 남창에서 태어난 팔대산인의 본명은 주탑朱耷으로 명나라 황족의 후손이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왕으로 임명되어 남창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가 되던 해에 만주족에 의해 명이 무너지고 이듬해 남창마저 함락되었다. 이 와중에 팔대산인은 가족을 잃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이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이름난 선승으로 지냈으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서 행각승으로 떠돌기도 했다. 광중이 심해지자 마침내 1680년 고향인 남창으로 돌아와 환속했고 이후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이때부터 팔대산인이라는 호를 사용했으며 개성적인 그림과 글씨, 그리고 난해한 시를 지으며 살다가 1705년 80세로 생을 마감했다.



팔대산인, <물고기>, 센오쿠하쿠코칸



팔대산인, <새>, 센오쿠하쿠코칸



팔대산인, 〈산수〉, 상해박물관

남창의 변화가에서 팔대산인의 자취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행히 시내에서 남쪽으로 8킬로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팔대산인기념관이 있다. 원래 도교 사원인 청운보靑雲譜를 1959년에 기념관으로 바꾸어 사용하다가 그 옆에 커다란 현대식 건물을 새로 지어 2011년에 개관했다. 사방이 물로 둘러싸인 경내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팔대산인의 무덤이 있다. 이곳에 진짜로 팔대산인이 묻혔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시신 대신 그의 유품을 모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하튼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근처에 무덤이 하나 더 있다. 우석혜牛石慧라고 묘비에 적혀 있다. 우석혜는 팔대산인의 친동생이라고 알려졌으나 역시 확실하지는 않다. 잘 꾸며놓은 정원을 지나 팔

대산인의 진품을 모았다고 하여 진상루眞賞樓라고 이름을 붙인 전시관에 들어가 본다. 커다란 전시실이 두 개 있는데 10개 정도씩 작품을 전시했다. 여기서 우석혜 작품 2점을 보았는데 팔대산인의 그림과 매우 비슷하다.

팔대산인은 20세기 들어서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화가로 유명해졌지만, 그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단지 기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괴짜 정도에 불과했다. 세상의 좋은 그림을 다 굶어모았던 건륭황제의 소장품에도 팔대산인의 그림은 한 점도 없다. 그후에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기에 그의 무덤이나 동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팔대산인과 가까웠던 소장형邵長蘅이란 문인이 기록한 짧은 전기가 남아 있다. 글에서는 팔대산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요약하고, 정신이 불안할 때는 크게 웃다가 말고 갑자기 통곡을 했으며, 한 번은 말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아啞”라는 글자를 문에다 써 붙이고 말 한마디 없이 지냈다는 일화를 소개한다.

실제로 〈새〉에서 볼 수 있듯이 팔대산인이라고 서명할 때 네 글자를 붙여 써서 마치 “소지笑之(웃는다)”나 “곡지哭之(통곡한다)”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고기〉에는 시를 한편 적었는데 “주위에 묻노라니 이게 무슨 강인가? 이름하여 곡아曲阿라고 한다. 그 근원이 되는 곳을 찾노라니, 해 질 무렵 노을만 가득하네.”라는 아리송한 내용이다. 짝막한 시에서 팔대산인은 『세설신어』, 『도덕경』, 진시황제, 왕유王維 등 방대한 고대의 역사와 문학에서 따온 구절을 인용한다. 더욱이 정치적으로 불행해진 자신의 처지까지 겹쳐 놓았기에 암호보다 더 어렵다. 여기서 이를 다 설명하기는 무리다. 다만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물고기는 자신의 뒤틀린 심사를 표현하는 페르소나인 셈이다. 그의 서예 또한 유별나다. 필획의 굵기에 변화가 없이 일정하여 얼핏 보면 사인펜으로 쓴 것 같은데 실상은 고전적인 서체를 바탕으로 오래 숙련을 거친 것이기에 묘한 매력 있다.

팔대산인은 현대에 비로소 유행하기 시작한 낭만적 예술가의 모습, 즉 불우한 천재로서 기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다는 신화에 잘 들어맞는다. 예나 지금이나 대다수의 예술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자본주의 상품논리로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비극적인 이미지를 과장한 것이다. 특이해야 잘 팔리기 때문이다. 여하튼 제백석齊白石이나 반천수潘天壽 같은 현대의 대가들은 낡은 전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그림을 찾는 과정에서 팔대산인을 길잡이로 삼았다. 죽은 지 200년이 지나서 비로소 팔대산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그가 생계를 위해 마구 그려냈던 그림들은 이제 심오한 아우라를 풍기면서 찬사를 받게 되었다.

팔대산인은 조선에도 알려졌다. 정조대에 대단한 책벌레였던 이덕무李德懋에 의해서 소장형이 쓴 전기가 출판되어 널리 읽혔고, 19세기의 대학자이자 서예가 김정희金正喜는 팔대산인의 작품까지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습기習氣, 즉 속된 구석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팔대산인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화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팔대산인의 파격적인 화풍을 따르기보다는 명나라의 유민遺民으로 오랑캐인 청나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충절을 높이 샀던 모양이다.



팔대산인 무덤

중국에서 고대 화가의 기념관으로는 처음 만들어진 팔대산인기념관이 청운보에 자리하게 된 것은 그가 한때 이곳의 책임자였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는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소장형이 썼듯이 너도나도 팔대산인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지금도 적다. 팔대산인을 찾아서 남창까지 갔지만 그는 더욱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다만 그의 그림들을 이제는 남창의 푸른 하늘과 맑은 호수를 떠올리며 더 큰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조인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팔대산인기념관 전경

판·매·매



책 읽어주는 者

“자네 들었는가, 종로의 절초전(담배를 잘게 썰어서 파는 상점) 앞에서 ‘그’가 목숨을 잃었다네. 『임경업전』에서 역적 김자점의 무고로 임경업이 죽게 되는 대목에서 구경꾼 중 한 명이 칼로 ‘그’를 찌르며 “네가 김자점이렷다!” 소리를 쳤다고 하는군.”

실로 어이없는 죽음이 정조실록(1790년 8월 10일)에 기록되어 있다.

부풀려 말하자면 18세기 조선이 궁궐에서 지방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소설을 즐기지 않는 곳이 없었기에 발생한 일이다. 당시 서울 도성 안에는 세책점貰冊店(책 대여점) 15곳이 성업 중이었다. “소설을 돈 주고 빌려 보는 데 값이 빠져 집안이 기운 자도 있다.” 실학자 이덕무가 혀를 찼다. 그런데 대부분 문맹인 일반 백성이 세책점을 들락거

릴 리는 만무한 일, 소설책을 읽어주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전기수傳奇叟가 생겨났다. 전기수는 사람들이 많은 일정한 장소를 정기적으로 순회했다. 지금의 종로를 6일 간격으로, 제1교, 제2교, 배우개(梨峴), 교동 입구, 대사동 입구, 종루의 순으로 오가는 식이다. 이들은 낭독하다가 사건이 긴박해지면 갑자기 읽기를 멈추었다. 다음이 궁금한 청중들이 돈을 던졌으니 전기수의 이러한 돈 버는 요령을 요전법徭錢法이라 한다.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음성의 고저와 억양을 능수능란하게 바꾸고 몸짓을 곁들여 낭독을 실감나게 했다. 전기수의 열연은 최고의 오락거리로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와 이야기 속 인물을 혼동한 청중이 사달을 일으킬 정도였던 것이다.

전기수 문화는 전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장시에서 소설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경우 말고도 소설책을 팔기 위해



김홍도, 담배썰기, 『단원 풍속도첩』, 국립중앙박물관

장바닥에 판을 펼친 상인 낭송자, 부유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가정을 드나든 낭송자, 마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낭송자 등 다양한 형태였다.

흥정 붙이는 者

가: 천불대天不大요?

나: 인불인仁不人이요.

가: 그럼, 조불백皂不白은 어떤가.

나: 아니오, 옥불일旭不日로 합시다.

가: 으흠, 태불윤兌不允으로 하세나?

우리말인지, 외국어인지, 고개를 가웃거리게 하는 말들은 변어邊語라 한다. 일종의 암호로 천불대는 1(天에서 大를 빼면 一), 인불인은 2를 뜻한다. 조불백, 옥불일, 태불윤이 7, 9, 8임을 알게 되면 과연 이렇게 숨겨진 숫자들이 어떻게 사용되었을지 감이 올 것이다.

조선은 성곽과 궁궐을 건설하면서 종로 거리에 시전행랑을 만들었다. 건물들은 1층은 상점, 2층은 창고의 구조로 주인은 최소한의 상품만을 진열하고 퇴청에 앉아서 손님을 기다렸다.

“경시서京市署(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에서 각 상점의 이름을 판자에 쓰고, 판매하는 물품을 그 아래에 아울러 그려서 각 처소에 걸어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1394년 1월 18일)

그렇지만 ‘조선의 만물상’인 종루 육의전의 바닥은 한바탕 둘러보는 데만 종일이 걸렸으니, 천여 칸이 넘는 행랑에서 원하는 물건 찾기는 ‘검불밭에 바늘 찾기’였다. 자연스레 물건을 사고파는 자의 틈새를 파고드는 직업이 등장했다. 바로 여러꾼이다.

“큰 광통교 넘어서니 육주비전(육의전) 여기로다.

일 아는 열립군列立軍과 물화를 맡은 시전 주인은 큰 창옷에 갓을 쓰고, 소창옷에 한삼 달고 사람 불러 흥정하니 경박하기 끝이 없다.”

— 1844년 한산거사가 쓴 〈한양가〉

남은 이익(여리餘利)을 챙긴다는 뜻도 있지만 상점 앞에 늘어서 손님 기다린다는 의미의 열립군에서 유래한 명칭인 여러꾼. 눈에 띄는 옷차림과 매끈한 말솜씨로 무장



김홍도, 장터길, 『단원 풍속도첩』, 국립중앙박물관



하고 손님과 상점주인 사이의 거래를 성사시켜 준 후 대가를 받았다. 손님 모르게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독특한 변어를 썼던 것이다. 큰 돈이나 거처가 필요 없고 신용과 인맥, 부지런함을 겸비한다면 입에 풀칠은 가능한 프리랜서였으나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사기꾼 인상을 주어 비하되기 일쑤였다.

낮에는 공무公務, 밤에는 황제인 者

“발승암은 기사騎射에 능해 무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집안이 본래 부유하여 재물을 분토糞土처럼 쓰고… 천금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언제나 준마와 명웅名鷹을 좌우에 두었다.”

한 시절 강남에서 향락적 소비를 일삼은 오렌지족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연암 박지원의 『발승암기』에 나온다. 연암은 ‘머리를 기른 중(髮僧菴)’이란 범상치 않은 호를 쓴 자를 방탕하고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아 ‘활자闖者(왈짜)’라 칭한다. 팔자가 늘어졌다 싶은 패거리, 왈짜. 그들 모두가 발승암 같이 무반, 즉 양반 출신은 아니었다. 경아전(중앙관청 하급관리), 포도청 포교, 의금부 나장, 승정원 사령, 대전별감(임금 주위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람), 무예별감(임금의 호위무사) 등 양반도 상민도 아닌 중간계층이 주축을 이루었다. 요샛말로 금수저가 아닌 그들이 ‘돈 쓰기를 퐁이나 흠쳐림’ 한 것은 놀고 마시는 유흥 공간, 기방을 활동무대로 삼았기 때문이다. 왈짜는 서울에 올라온 지방 출신 기생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생의 영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차지했다. 기방의 고객이기도 한 왈짜는 기생과 직업 음악인에 해당하는 가객, 금객 등을 불러 모아 춤과 노래, 기악을 아우르는 큰 공연 판을 벌였으니 민간예능의 기획자이자 향유자이기도 했다.

신윤복은 『해원전신첩』에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세련된 색상 조합의 레이어드룩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를 단 왈짜를 생생하게 그려냈다. 붉은 단령에 파란색 허리띠를 매고 노란색 초립을 써서 화려하고 맵시 있게 치장한 별감이 다. 별감은 복식의 유행을 이끌며 시정의 뒷골목을 쥐락펴락한 조선 후기의 ‘투잡족’이었다.

전기수, 여리꾼, 왈짜,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 신분제 사회의 ‘마이너리티’들.

종로를 거닐며 그들 삶의 현장인 운중가를 그려본다. 육의전 터와 피맛길을 알리는 표지석과 투명한 발판 아래의 유구가 눈물겹도록 반갑다.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들이 잊히지 않으려 여전히 애쓰는 듯 느껴진다. 책 읽고, 호객하고, 호령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높다란 빌딩 사이를 스치는 바람결에 실려 올 것만 같다. 🐼

문정원 회원



영조 정순왕후 가례도감 의궤 반차도 중 별감(녹의)

답사기



불회사 장승

느린 시간의 터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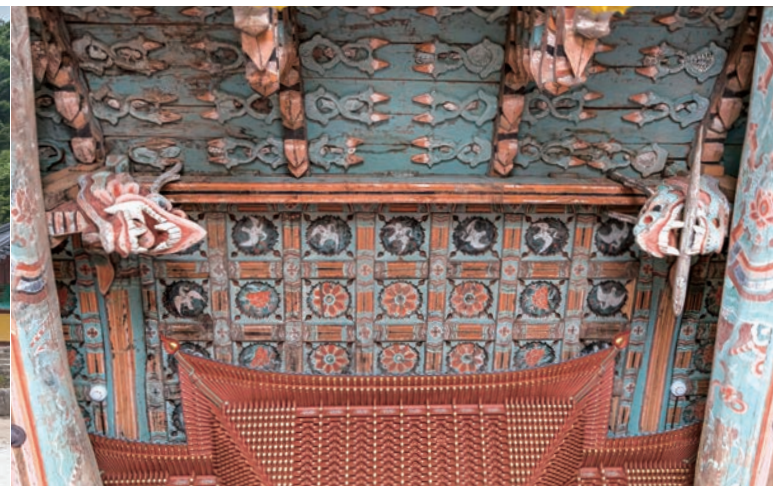
나주는 고려 성종 때 나주목이 된 이후 관찰부가 광주로 옮겨가는 1896년까지 천 년 가까이 전라도라는 이름에 지명을 엮을 만큼 큰 고을이었다. 굽이굽이 가로지르는 영산강은 전라남도의 젓줄이 되었고 세곡을 실어 나르는 조창이 고려부터 16세기 초까지 이곳 나주에 있었다. 일제강점기 외래 문물이 영산강 뱃길을 통해 내륙으로 전해졌고, 육로와 수운이 편리했던 영산포는 조선 수탈의 중요한 창구였으며 교통의 요지였다. 지금은 잊혀진 영광이 되었지만, 고대 마한의 금동관을 통해 강한 정치권력의 시간을 감아올리듯이, 시간의 깊이만큼 멋들어진 문화유산들이 여전히 숨 쉬고 있다. 고분과 그 유물들, 돌당간, 석불입상과 칠불석상, 나주읍성 안의 관아건물, 향교, 자연과 하나 된 고찰들과 귀한 돌장승, 나주반, 도래 한옥마을, 영산강 물길따라 만나는 정자들, 영산포 근대문화유산 등 시간을 오르내리며 천천히 그들의 숨결을 느낀다. 나지막한 산줄기가 정겹고, 느긋해야 아로새긴 흔적이 더 잘 보이는 나주, 그 첫 발자국을 지금 나누고 싶다.



불회사 진어문



불회사 대웅전



불회사 대웅전 천장



불회사 대웅전 내부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루를 열어 나주로 향한다. 아직 이른 아침,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주에서도 깊숙이 들어앉은, 오래 보고 싶던 장승 두 분이 살고 있는 곳, 불회사佛會寺 앞에 선다. 초전성지덕룡산불회사初傳聖地德龍山佛會寺, 잘 갖추어진 젊은 일주문이 마중 나와 있다. ‘불교가 처음 전해진 성지’라니, 백제에 불교를 전한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366년 창건했다는 설에 대한 자부심을 담은 것 같지만 『조선사찰자료』에 ‘백제 침류왕 원년(384)에 마라난타가 진나라로부터 와서 창건했다.’는 기록이 아직은 유력하다. 그래서 불회사는 백제 불교 전파 경로를 밝히는 데 중요한 절집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한적하다는 말이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없는 길고 서늘한 길이 이어진다. 울창한 편백나무 숲이 뽐어내는 좋은 기운이 신비롭게 온몸을 감싸준다. 다친 발을 잊은 듯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오래된 나무가 절집을 지키는 수문장을 소개한다. 반가움에 가슴이 덜컥한다. 옛이야기 보따리를 품은 듯한 할아버지 할머니 장승이 내 눈앞에 서 있다. ‘어이 와.’ 할머니 장승의 반가운 표정에 할아버지 장승은 커다란 눈을 들어 할머니 장승을 쳐다본

다. 왕방울만 한 눈에 짙은 주름과 멋진 광대, 웃음을 담은 입에는 재미나게 이가 새겨지거나 송곳니가 빠죽 나와 있다. 두 분의 부드럽고 조화로운 표정이 어떤 부정한 기운도 녹여버릴 것 같다. 가장 큰 힘은 따뜻함이니까. 두 장승을 사이에 둔 바닥에 연꽃무늬 박석이 줄지어 길을 안내한다. 무심히 걷다 보니 마음이 더없이 평화롭다. 장승의 힘인가, 아니면 연꽃 박석이 세상 번뇌를 잊게 한 것인가? 계곡 건널목, 아래엔 홍예가 위엔 진여문이 서 있다. 문지방 너머에 바로 사천왕문이 나타나 잠깐 긴장한다. 익숙하지 않은 사천왕도를 바라보며 경내에 들어서면 대양루가 막아서고, 누 아래 계단식 석축을 오르면 산자락에 안긴 대웅전이 당당하게 내려 본다. 자연석 높다란 3단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앉은 멋스럽고 날렵한 팔각지붕 집이다. 정조 22년(1798) 큰 화재로 순조 8년(1808)에 다시 지은 대웅전은 조선 후기 양식을 잘 간직한 보물이다. 새 단장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해사한 4분합 꽃살문 창호에는 평온함이 깃든다.

정적이 감도는 대웅전, 정면 어칸 용머리의 위용에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다 건물 안 대들보 아래에서 살랑거리는 용 꼬리를 보고 절로 웃음이 터진다. 그것도 잠깐 천장에서 쏟아질 듯 아름다운 장식에 탄성을 지르고 만다. 우물천장과 빗천장이 이야기 잔치를 벌이는 현장이다. 연꽃과 학, 모란이 그려진 우물천장과 빗천장 연꽃 줄기 사이에서 노는 듯 지나는 듯 물고기와 거북, 게 조각이 연화세계에 빠져들게 한다. 나한, 산수화 등 천장 주위의 벽화도 장엄하다. 대들보에 고개를 내민 채 마주 보고 있는 용 두 마리가 주존불을 호위하는데, 왼쪽 용은 입에 목어를 물고 있다. 물고기(魚)의 소리가 여가와 거의 같다더니 여의주 대신 물고기를 물었나 보다. 대웅전 수려한 용들 사이에 장난스러운 표정의 작은 용이 쉴 자리를 내주니 빼꼼히 고개를 내민 부처님은 천장을 향해 엉겨주춤 서 있는 중생에게 얹은 미소를 띤다. 주먹 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싼 지권인 수인을 가진, 고려 후기 비로자나불이다. 흠으로 불상을 빚어 그 위에 종이를 덧입히고 옷칠을 한 다음 금물을 입힌, 요즘 세상에 어울리는 작은 얼굴의 건칠불이다. 드물게 보이는 건칠불이 나주에만 심향사, 죽림사까지 세 곳이나 있

다. 재질이 부드러워서인지 군의의 매듭이나 옷 주름 표현이 세밀하고 정교하다. 비로자나불이 비추는 광명의 빛 때문인지 창호에 새겨진 꽃들도 숨을 쉬는 것 같다. 불회사를 감싼 덕룡산은 첩첩이 둘러싸인 능선과 오르내리는 봉우리가 산세를 깊게 한다. 대웅전 좌우로는 나한전, 삼성각과 명부전이 날갯짓하듯 자리 잡고 있다. 법당 뒤편 동백 숲을 보니 숨어버린 봄 풍경이 그려진다. 비자나무와 차나무 숲은 나라 전체에서 손꼽히는 국가산림문화자산이라고 하고, 음향각 옆 단풍나무는 돌아오는 가을을 기약한다. 자연과 절집의 조화로우미 그저 좋아 우두커니 바라보는 대웅전 넓은 앞마당이 낯설다. 천년고찰에 세월을 쌓아 올린 탑이나 잘 생긴 석등은 보이지 않고 괘불대만 3쌍이나 서 있다. 그 다름이 오히려 절집을 고즈넉하게 만든다. 다도면이라는 고장 이름을 선물한 귀한 차를 마시지 못하고 내려오는 아쉬운 걸음이 천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연리목의 신비스러운 모습과 만난다. 우리 인연도 다시 닿길. 🍵

정은정 회원

다시, 生

—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

나는 평양 오아리에서 출토되었다 하여 이름은 ‘평양 오아리 항아리’입니다. 내 모습이 아직 미복원 상태이니 이름도 미완성이겠죠? 나는 수십 개의 조각으로 깨진 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토기 도자기 보존과학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물관 보존과학실이 생소하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와 같은 상태의 손상되고 아픈 문화재를 치료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곳입니다. 미술 같은 공간이죠. 하지만 미술처럼 똑딱 탄생되는 것은 아니고, 첨단 기술과 과학 장비의 도움과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생명을 얻어 아름다운 문화재로 재탄생됩니다. 보존과학에 대해 덧붙이자면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X선 같은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화재 속에 숨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밝힐 뿐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등 유물의 루트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 모습은 현재 깨진 조각을 가접하는 중이라 모양새가 우스꽝스러운 상태이지만 낙랑유적지에서 출토되어 낙랑군 시기의 유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나는 2천 년 전의 유물이 되겠지요. 낙랑공주와 호동왕자가 살았던 시대에 내가 존재했었다니, 놀랍지요. 낙랑공주는 『삼국사기』에 회자되어 설화 속에 살아 있지만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땅속에서 이름 모를 조각으로 묻혀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 보존과학실에 온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나를 제대로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수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나의 분신 조각들을 분석하고 치료해서 원래의 내 모습을 되찾아 준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 나의 출생 연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여기 보존과학실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보존과학자들의 노력과 수고를 빼놓을 수 없지요. 이분들이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지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급한 수리가 필요한 소장품만도 7만 점에 이르지만 1년에 1,000점밖에 치료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의 원형을 살리고 보호하려는 정신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복원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어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보존과학자의 처리 계명 중에, ‘옛 장인의 입장에서 당시 장인처럼 작업한다.’라는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나의 보존과학자가 나를 대하는 마음은 흡사 당시 나를 만들었던 장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들이는 따뜻한 마음과 수고가 옛 장인이 나를 만들 때의 과정을 역으로 되밟아 가는 듯 느껴집니다. 덕분에 나는 수천 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는 설렘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나의 보존과학자가 조만간 나를 완벽하게 복원해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진행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유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X선 투과조사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유물의 성분분석을 하고 재질을 확인합니다. 연대측정법으로 항아리의 연대를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 편의 조각조각마다 이물질들을 세척합니다. 화학약품이나 부드러운 천,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세척하기도 합니다. 세척된 편을 각각 제자리에 맞추는 일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편을 맞추기 위해서는 접착성이 약한 테이프로 가접한 다음, 가역적 방법으로 해체합니다. 완벽한 제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서 편을 맞추고 해체하는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 다음은 안료와 수지,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조각들을 접합하고, 접합선 흔적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표면 질감과 색감을 맞추어 복원합니다. 보존과학자들이 작업을 할 때는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워

한답니다. 간혹 문화재에 남겨진 역사적 흔적을 마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자기를 빚을 때 묻은 몇 천 년 전 어느 장인의 지문을 발견했을 때의 흥분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곳 보존과학실에서 현재 치료 진행 중인 문화재 몇을 소개해볼게요. 목재 보존처리실에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전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외관을 장식하는 금박이 나무의 재질 때문에 금이 가서 울퉁불퉁 뒤틀리고 탈락돼 응급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미국 프리어&새클러 박물관에 전시 대여할 예정이어서 더욱 세심한 정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쪽 다리는 곧추 세우고 다른 한쪽 다리는 대좌 아래로 내려뜨린 유희좌 자세의 특이하고 아름다운 불



평양 오아리 출토 항아리, 국립중앙박물관



목조관음보살좌상, 국립중앙박물관

상입니다. 당시 제작기법을 확인한 결과, 총 15개의 부재를 접합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유물의 내부 단층면을 볼 수 있는 컴퓨터 단층 촬영법과 X선 투과조사 등을 통해 불상의 내부 구조와 손상상태를 확인합니다. 머리에는 제작 당시 넣은 고려시대 ‘대수구다라니경’ 판본이, 몸에는 씨앗을 담은 오보병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은 나무에 흙을 바르고 옷칠을 계속한 다음 전통 접착제인 아교를 주사기에 넣고, 훼손된 상처 부분에 바르고 금박을 붙여 아름다운 불상으로 복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려나전향상’을 살펴볼까요. 물가풍경이 담긴 나전상자 안에서 꽃 모양 향이 나와 나전 향상자라 부릅니다. 개경 부근 무덤에서 나왔다고 전하는데, 한국전쟁으로 파손된 상태로 있다가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모사도가 발견되어 원형을 추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보존과학실에서 과학적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 시기는 11~12세기로 추측합니다. 백골에 옷칠을 하고 비단을 붙이고 다



CT(컴퓨터 단층 촬영)

시 옷칠하고, 여러 번 애벌칠을 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 얇게 갈아 투명하게 한 거북이 등껍질 안쪽에 색을 칠해 바깥쪽에 비치도록 하는 고난도의 기술을 사용해 꽃을 표현합니다. 금박을 분말 형태로 만들고 아교를 섞어서 그리는 묘금기법으로 회화적 요소를 살리고요, 나전 무늬를 화려하게 감싸고 있는 테두리 부분은 두 가닥의 가는 금속선을 한데 꼬아 새끼줄처럼 만들어 박아 넣는데요, 윗선과 아랫선의 방향이 반대로 흐르게 처리한 것도 흥미롭지요.

여러분이 박물관에서 만나는 문화재는 이러한 보존처리를 거쳐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들입니다. 나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문화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지요. 유물들을 열정과 기술로 복원하여 보존해가는 보존과학실이라는 공간을 응원해 주세요. 제 모습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투를 벌여야 할지 알 수 없지만 조만간 보존처리된 ‘평양 오아리 향아리’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날이 사뭇 기다려집니다. 🐼

강현자 회원



고려나전향상, 『조선고적도보』



타르퀴니아, 표범의 무덤 벽화

2000년 9월 가을, 프랑스 남부 연안에서 기원전 6세기경에 침몰한 배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저 60m 지점에서 발견된 잔해의 대부분은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적갈색 도기였습니다. 700~800개에 달하는 이 암포라들은 당시 이탈리아 중북부에 위치한 에트루리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함께 발견된 코르크 마개에 묻어 있는 역청을 분석한 결과 암포라 안에 담겼던 내용물은 에트루리아인들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포도주였습니다.

고대 지중해에서 전쟁이나 해적질을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인 해상 교류는 연안 무역이었습니다. 이 항구에서 다음 항구로 무역선이 다니는 동안 올리브유와 포도주, 도기류와 금속을 비롯한 온갖 품목이 거래되어 배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라는 단일한 수출품목을 대규모로 싣고 티레니아 해안의 피르지를 떠나 남프랑스로 향하던 이 상선은 평범한 연안 무역선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해저의 암포라들이 최소 네 개의 층으로 쌓여 있었던 이유는 배 바닥에 이들 암포라를 마치 계란을 쌓듯 3차원 퍼즐처럼 촘촘히 선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발견된 넓적한 청동 와인잔, 즉 파테라를 통해 에트루리아에서 남프랑스로 포도주뿐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전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망각에서 건져 올린 에트루리아

흥미롭게도 이 에트루리아산 포도주에는 바질, 로즈마리, 타임 등의 허브도 들어 있었답니다. 포도주마저도 향기로 운 허브를 첨가하여 풍미를 더하던 이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탈리아반도에서 최초의 독자적인 문명을 이룬 고대인들입니다. 종교와 언어를 공유하는 열두 도시의 연합체인 에트루리아는 기원전 10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그리스, 소아시아와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팽창하는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고 흡수되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로마 문화의 토대가 되었지만, 에트루리아라는 이름은 로마의 긴 그늘에 가려져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역사가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역사』에서 소아시아의 리디아인들이 이탈리아반도에 이주했다고 기록한 반면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우스는 이들이 토스카나, 움브리아, 라치오 지방의 토착민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남긴 유적과 문화를 살펴보면, 이 상반되는 두 주장이 모두 옳은 듯 보입니다. 빌라노바 시대의 단순한 집 모양 유골함이나 옹관은 당연히 선주민의 것처럼 보이고, 고도로 발달된 도시 계획 방식과 아치로 관문을 세우는 건축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널리 행해진

간점을 보면 이들이 근동에서 온 도래인이라고 믿고 싶어 집니다. 오래전에 만난 선주민과 도래인이 함께 공존하며 천천히 융화되었을 가능성을 상상해봅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의 건축은 목재와 테라코타가 주재료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전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집을 모방한 무덤과 그 안에 그려진 벽화를 통해 이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벽화 속 에트루리아인들은 부부가 함께 비스듬히 누워 연회를 즐기고,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고, 춤으로 신을 숭배했습니다. 시중드는 이들은 포도주를 내웁니다. 남자들의 피부색은 여자들보다 진하고, 얼굴은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여자들은 살이 비칠 듯 정교하게 직조한 튜닉을 입고 연회를 주관하거나 남자들과 마주보고 춤을 춥니다.

에트루리아에서 여성의 위상은 그리스나 로마에 비해 독보적이었습니다. 에트루리아 여성들은 가문의 이름 뒤에 익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으며, 사람들은 이름 뒤에 아무개 씨의 아들이라는 호칭만이 아니라 아무개 부인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반면 동시대 아테네나 코린트에서 제작된 도기 표면의 그림에서 그리스인들의 연회는 순전히 남자들을 위한



점성술사가 묘사된 유골함 뚜껑,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



여행하는 부부가 묘사된 유골함, 구아르나치 에트루리아박물관



피아젠차의 간

것입니다. 연회에 함께하는 여자들은 직업여성이나 악사들뿐입니다. 아마 에트루리아에 민주주의가 전파되었다면 분명히 여자들도 참정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8세기부터 이탈리아반도 남부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에트루리아인들은 이들과 교류하는 동안 자기들의 토착신들에 더해 그리스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에트루리아인들의 신앙심과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은 지중해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후에도 연회가 지속된다고 믿었고, 죽음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전에서 발견되는 갖가지 자그마한 봉헌물은 에트루리아인이 각자의 염원을 신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단순 명료한 상징물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신의 뜻을 읽는 일은 응당 점성술사의 몫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어느 쪽에서 번개가 치는지, 기러기들이 어떤 모습으로 날아가는지, 그리고 희생 제물로 바친 양의 간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서 신의 메시지를 읽어내고 미래를 점쳤습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피아젠차의 간은 신들의 세계인 하늘의 지도이며, 여러 구획으로 나뉜 각 부분마다 관장하는 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2

세기에 만들어진 이 간 모형은 바빌로니아의 점토로 만든 양의 간 모형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간은 피의 근원이며 몸 안에서 생명(영혼)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트루리아인들은 간점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간점의 교본이 되는 간 모형은 점성술사들의 중요한 소유물이자 수출 품목은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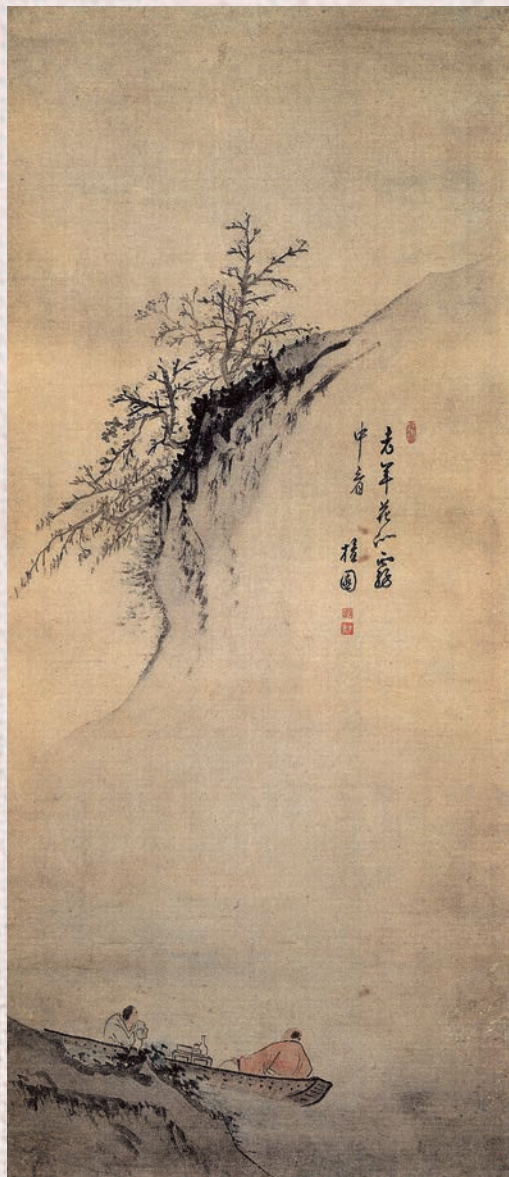
에트루리아에 전차가 전파된 경로도 궁금합니다. 기원전 8세기 이후에 그리스인들을 통해 전해졌을까요, 아니면 북방의 유목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더 일찍 알게 되었을까요? 기원전 5세기에 에트루리아인들이 봉헌물로 스키타이인의 청동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이들이 흑해 너머 초원의 유목민 전사들과도 접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활동반경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고, 에트루리아인들이 주변세계와 만나는 접점은 페니키아인이나 그리스인의 중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아갈수록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옛 사람들의 역량을 후대인으로서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황문영 회원



전차, 피렌체 국립고고학박물관

한국화, 그 새로운 만남



김홍도, 〈주상관매도〉, 개인 소장

그림을 좋아했다.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르네상스 화가를 비롯해 인상파 고흐, 추상파 칸딘스키에 이르기까지 국내 전시회는 물론 유럽 여행을 할 때도 미술관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찾아다녔다. 책도 많이 읽고 인터넷도 부지런히 뒤져서 하나라도 더 머리 속에 넣으려 애썼다. 전시회에 가서는 어쭙잖게 친구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나를 감동도 하면서 그림과 가까이 해왔다. 하지만 한국 회화에는 그다지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오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앞에 오래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청자와 분청사기를 보고 나서 회화실을 지나쳐 기획전이나 경천사지십층석탑을 보고 나오곤 했다. 나에게 회화실은 그저 다른 전시실로 이동하는 통로일 뿐이었다. 한국화에 흥미를 느껴 보려고 관련 서적을 구해 읽으며 나를 노력도 했다. 하지만 문인 화가들의 시대적 배경과 정서는 이해하고 공감할지언정 그림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이나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 겸재 정선의 〈인왕계색도〉 정도를 알아보고 좋아하는 정도에 그쳤다. 특히 산수화나 화조도, 그들이 건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 내게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특설강좌에서 한국의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화를 새롭게 만났다. 관념산수화가 품고 있는 상징들을 알게 되자 그들과 눈맞춤을 하며 그림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실재하는 자연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이상 속의 산수, 죽림칠현, 무릉도원 같은 은둔과 풍류의 공간을 화폭에 구축하며 그 시대의 화가들이 추구하던 이상적인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저 그렇게 다 비슷해 보이던 그림들이 저마다의 제 색깔을 드러내며 내게 말을 걸어왔다.

겸재 정선의 그림은 다시점이라는 공간 구성을 통해 실경이 아닌 진경산수화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특히 〈금강산만폭동도〉는 능력은 없지만 소망은 가득하여 3년 여 동안 그림을 그리다 끝내 그만둔 내 그림에 대한 미련을 한 방에 해결해준 그림이었다. 그만둔 게 옳았다. 겸재 같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했다니!

오주석의 책 『한국의 미 특강』을 보다 내가 정말로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발견했다. 단원 김홍도의 〈주상관매도〉이다. 집중과 생략, 긴장과 여유, 균형과 변화, 비움과 채움, 보는 자와 보여주는 자, 눈으로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그린 그림이다. 또 〈서당도〉에서 보여주는 익살과 호쾌함, 〈마상청앵도〉의 기품, 〈송하명호도〉의 추상 같은 위엄을 통해 김홍도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한 순수를 향한 기원이 화폭에 담겨 있음을 느꼈다. 내가 추구하는 그림과 삶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

또 강의와 책을 통해 조선의 초상화가 건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책에서는 익히 알고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 외에도 〈전 이재 초상〉을 예로 들어 엄숙하고 단정한 기운에 형형한 눈빛, 단정하고도 편안한 인물의 기운이 화폭을 흐르고 있어 안정되면서도 차분한 선비의 기운이 표현되어 있다고 조선 초상화의 예술적 경지를 설명했다. 터럭 하나 하나의 묘사, 노인 피부의 매마른 질감, 검은 복건의 선과 색, 동공의 홍채까지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극사실적인 묘사가 그저 놀랍고 감탄스러웠다. 내가 초상화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보지 않아서였음을 깨달았다. 언제 내가 그들 앞에서 터럭 한 올, 각 잡힌 복건, 형형한 눈빛까지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이명기의 〈채제공 초상〉을 보면서 그분이 사시였고 천연두의 흉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화가가



작자 미상, 〈전 이재 초상〉, 국립중앙박물관

그런 작은 사실까지 그려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유교적 원칙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오래도록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옛 그림이 건네는 이야기를 청청할 준비를 하고 마주할 때 그들은 내게 말을 걸어온다. 이제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다. 🐼

김한영 회원

〈경포대도〉, 〈총석정도〉 아름다운 기증으로 돌아오다



〈경포대도〉



〈총석정도〉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7월 18일 재일교포 고故 윤익성尹翼成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 창업주의 유족으로부터 조선시대 16세기 중반 제작 〈경포대도鏡浦臺圖〉와 〈총석정도叢石亭圖〉 2점을 기증받았다.

고 윤익성 회장의 유족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를 환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할 것을 조건으로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신성수)에 기부금을 출연하였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본 교토京都에 전해지던 위 두 작품을 조사하고 외부 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기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우리회는 기증품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입과 운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두 작품은 이 시기 서화를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며 실경산수화 이해의 폭과 수준을 높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작품은 7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우리 강산을 그리다: 화가의 시선-조선시대 실경산수화》특별전에서 전시·공개된다. 🐼



기증식에서 인사말하는 국립중앙박물관회 신성수 회장

기부회원 소식

우리옛돌박물관, 일본 유출 석조유물 환수

1920년대에 경매를 통해 일본에 넘어간 우리 문화재가 돌아왔다. 오자와 데리유키 부부가 지난 7월 자신들이 소장했던 석조 유물 8점을 우리회 천신일 기부회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리옛돌문화재단에 기증하였다.



오자와 부부는 외조부 요시이에 게이조로부터 상속받은 석조 문화재가 한국의 문화유산이어서 이를 보존할 한국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된 유물은 장군석, 장명등長明燈, 비석받침, 수병水瓶 등 각 2점씩 8점이며, 우리옛돌박물관 정원에 설치되었다. 🐼

테마강좌 신설안내

2019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특설·연구강좌와는 차별화된 테마강좌를 선보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다각적이고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테마강좌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 강의일정 : 10월 2일(수) ~ 11월 27일(수), 오후 2시 ~ 4시(매주 수요일, 8회 진행)
- ▶ 강의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 ▶ 모집인원 : 200명
- ▶ 수강대상 : 우리회 회원 및 일반인

- ▶ 강의주제 :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대 서양 역사

20세기의 서양사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그에 대한 도전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물결을 타고 보편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한다면, 본 강좌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력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 관행, 문화 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강사 : 노경덕(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서양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시카고 대학교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서로는 『세계사1』, 『세계사2』, 『다시 돌아보는 러시아 혁명 100년』, 『푸틴시대의 러시아』, 『중러관계와 한반도』 등이 있습니다. 🐼



* 자세한 강의일정과 신청안내는 우리회 홈페이지(www.fnmk.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 모양 손잡이 잔, 금속공예실

꽃잔에 술 담으면

활짝 핀 꽃 한 송이.

여린 꽃잎 흐트러질까
떨리는 손 지그시 눌러
살며시 맑은 술 부으면
달빛도 내려와 머물고.

소담스러운 자태에 홀려 한 잔,
향긋한 꽃향기에 취해 또 한 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申聖秀
副 會 長	尹在倫 朴殷寬
理 事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善正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金敎台 李敎祥
事 務 局 長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백호회원 삼성전자	金敎台 金南延 金承謙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禎原 裴東眩 宋英淑 俞相玉 李圭植 李明姬 李玉卿 李周成 李垽炘 李裁範 鄭明勳 鄭在鳳 崔杜準 최철원 許允秀 許允烘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가스 사장 (주)컨셉 대표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팬택&큐리텔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창성그룹 부회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서울옥션 부회장 세아제강 부사장 MashupAngels 대표 금강공업(주) 사장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주)한섬 (주)동남유화 회장 MIGHT&MAIN(주) 사장 (주)ALTO·(주)ALTEK 사장 GS건설 부사장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柳芳熙 柳智勳 朴善正 朴英柱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秉峻 宋 哲 辛炳讚 梁洪碩 禹燦奎 柳昌宗 尹賢慶 李敎祥 李廷龍 林鍾勳 張善霞 張仁宇 曹榮峻 崔雄善 崔正勳 韓惠舟	회원 영풍제약 부사장 (주)종합전기 대표 (주)풍산주택 회장 (주)한탑 사장 대선제분(주) 부사장 아성다이소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주)게임빌·(주)컴투스 대표이사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대신증권(주) 사장 학교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서울가든호텔 사장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한미헬스케어 대표이사 (주)교원 상무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인팩 대표이사 이도 대표이사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백호회원 삼성전자	金敎台 金南延 金承謙 金信韓 金芝延 都炯泰 朴炳燁 朴容允 朴禎原 裴東眩 宋英淑 俞相玉 李圭植 李明姬 李玉卿 李周成 李垽炘 李裁範 鄭明勳 鄭在鳳 崔杜準 최철원 許允秀 許允烘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릉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대성산업가스 사장 (주)컨셉 대표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팬택&큐리텔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창성그룹 부회장 가현문화재단 이사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경신금속(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서울옥션 부회장 세아제강 부사장 MashupAngels 대표 금강공업(주) 사장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주)한섬 (주)동남유화 회장 MIGHT&MAIN(주) 사장 (주)ALTO·(주)ALTEK 사장 GS건설 부사장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柳芳熙 柳智勳 朴善正 朴英柱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秉峻 宋 哲 辛炳讚 梁洪碩 禹燦奎 柳昌宗 尹賢慶 李敎祥 李廷龍 林鍾勳 張善霞 張仁宇 曹榮峻 崔雄善 崔正勳 韓惠舟	회원 영풍제약 부사장 (주)종합전기 대표 (주)풍산주택 회장 (주)한탑 사장 대선제분(주) 부사장 아성다이소 부사장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주)게임빌·(주)컴투스 대표이사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대신증권(주) 사장 학교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서울가든호텔 사장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한미헬스케어 대표이사 (주)교원 상무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인팩 대표이사 이도 대표이사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주작회원 金正泰 尹光子	하나금융그룹 회원			
천마회원 金錫洙 南秀淨 朴殷寬 孫昌根 申聖秀 申憲澈 尹碩敏 尹章燮 尹在倫 鄭溶鎭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동서식품(주) 회장 (주)앤앳푸드 사장 (주)시몬느 회장 소장가 고려산업(주) 회장 SK에너지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신세계그룹 부회장 효성 총괄사장 세중문화재단 이사장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헤럴드·올가니카 회장			
금관회원 姜德壽 庚 圓 權俊一,具在善	(주)STX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은관회원 姜院基 金寧明	오리온 대표 (제)예을 이사장	

청자회원

姜承模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赫 具瑗姬 鞠賢永 權志億 權宅煥 金建昊 金京姬 金寧慈 金大煥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旼洙 金相潤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珷 金榮秀 金英惠 金裕錫 金侖壽 金恩惠 金益煥 金仁順 金載烈 金正宙 金宗學 金知爰 金志泰 金兌炫 金澤辰 金賢鎰 南兌勳 柳重熙 문윤희 閔俊棋 朴璟鎭 朴仙卿 朴宣注 朴世昌 朴漢正	KP그룹 부회장 (주)금비 부회장 (주)LS 상무 LS-Nikko동제련(주) 이사 LIG넥스원(주) 부회장 LS-Nikko동제련(주) 부사장 한성플랜지 이사 세기상사(주) 기획팀장 아이에스동서 전무 신대양제지(주) 대표이사 삼양사 상무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주)예을 명예이사장 (주)수페리아·수페리어홀딩스(주) 사장 한화 큐셀 전무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삼익악기 사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2014아시안게임 조직위원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화관 관장 지알엠주식회사 상무 한세실업(주) 대표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주)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한세엔케이 전무 태아산업(주) 부사장 성신양회(주) 부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히든베이호텔 사장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아주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라인타셔날법률사무소파트너변호사 진주협 대표이사 부사장 웅인대학교 총장 영은미술관 관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V&S자산운용 부장	朴載相 朴載蓮 朴廷彬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白晉宇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魚湖善 吳勝敏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常宰 李善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濤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柱翰 李濬宇	성곡미술관 이사 (주)신원 부회장 재미교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TV조선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코퍼레이션 전무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홀딩스 상무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골드만삭스 상무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주) 전무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 전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목금토갤러리 관장 삼보모터스 프라코 상무 (주)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주)경농 부사장 (주)이테크건설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주)삼익유니버스 이사 홍아해운 부사장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張同鎭 張升準 洋賢財團 田永采 田潤洙 鄭瑛海 丁恩美 鄭義宣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在顯 趙希卿 陳在旭 千碩圭 崔世勳 崔善默 崔仁善 崔再源 崔昌和·鄭惠淑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碩炫 韓榮宰 咸泳俊 許正錫 許辰秀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金根鎬 洪正國 洪正道 洪禎寅 洪進基 洪振碩 黃仁奎 Joseph Bae Mark Tetto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이사회 의장 (주)파워맥스 사장 매일경제 사장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회원 블룸앤코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제 대표이사 (주)가온소사이터티 대표 하나유비에스 대표 천일식품(주) 대표 (주)카카오 CFO 회원 SK(주) 부회장 회원·자원봉사 프로듀서 노루홀딩스 회장 (주)오투기 회장 일진홀딩스(주) 대표이사 SPC(주) 부사장 (주)화승R&A 부회장 호성홍업 회장 (주)더벤처스 대표이사 남양유업(주) 부장 고려제강 부사장 고려상사(주) 부회장 회원 (주)BGF리테일 부사장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대표이사 사장 중앙홀딩스/JTBC, 전략담당팀장 마리오아울렛 이사 남양유업(주) 상무 CNCITY에너지 대표이사 KKR Asia Limited 대표 TCK Investments 전무
---	---	--	--	--	--

* 2019. 8. 30.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